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

Why Yon-o and Se-o couple Going to Japan

저자
(Authors) 김강산
Kang-san Kim

출처
(Source) [아시아강원민속 25](#), 2011.12, 197-243 (47 pages)
[The Asia Gangwon Folklore 25](#), 2011.12, 197-243 (47 pages)

발행처
(Publisher) [아시아강원민속학회](#)
The Society for Asia Gangwon Folkar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8034>

APA Style 김강산 (2011).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 아시아강원민속, 25, 197-2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1 14:3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

김강산*

차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국문초록〉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 권제일(紀異卷第一)에 보면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에 대한 설화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는 유일한 일월신화(日月神話)로 알려진 연오랑과 세오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구성이 특이하고 전개되는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문헌상 유일한 일월신화라는 데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설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어찌하여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라인의 일본 이주설이라던가 일본 신화와 연관성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일월신화 자체로만 보는 것 같아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를 수 없기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까닭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연

* 태백문화원장.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_김강산 197

구하여 이 설화가 말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오랑과 세오녀를 실존 인물로 보지 않고 ‘해의 나라’의 상징으로 보고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것은 해의 나라를 뜻하는 부상국(扶桑國)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부상국이었고 해의 나라였지만, 일월신(日月神)의 화신이라 할 그들이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부상국의 지위가 더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론적으로 말해,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것은 ‘해의 나라’의 지위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말하고 세오녀의 비단은 해를 상징하는 물건이기에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므로 해서 실제적 ‘해의 나라’는 일본으로 갔지만, 신라도 해가 밝게 뜨는 ‘아침의 나라’로 거듭 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 핵심어: 연오랑과 세오녀, 삼국유사, 일월신화, 부상국, 아침의 나라

1. 서론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 권제일(紀異卷第一)에 보면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에 대한 설화가 실려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헌으로는 유일한 일월신화(日月神話)로 알려진 연오랑과 세오녀에 대한 이야기는 그 구성이 특이하고 전개되는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연오랑이 큰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되고 뒤이어 아내인 세오녀가 또 그 바위를 타고 남편의 뒤를 따라가 왕비가 되는데,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버리게 되고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그들은 해의 정령인데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변고가 생겼다고 한다. 왕이, 그러면 가서 데려오라 하고 연오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니 못 간다고 하며 대신 세오가 짠 비단을 주니 그것을 가져

와 제사하니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빛났다고 하는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은 연오랑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신라인의 일본 이주로 이해하는가 하면 실제 일본의 어느 변읍의 왕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일본의 신공왕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 가운데 이병도는 ‘일본의 아마노하보코(天日槍)’ 이야기와 비교하였고, 이흥식은 ‘진한에서 동해를 건너 일본의 한 지방에 지배자가 된 설화로 봤고, 정중환은 ‘아마노하보코 설화와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가 그 근본이 같다’고 보았고. 장덕순은 ‘일본 태양의 여신 천조대신(天照大神)과의 어떤 관련설’을 주장하였고, 일본 쪽 金擇은 ‘신라인이 일본에 이주한 것을 말하는 설화’로 봤고, 津田은 ‘아마노하보코 설화와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는가 하면 최근 이명식은 ‘설화에 등장하는 연오는 일본에 건너가 세력을 형성하였던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

이 이야기가 문헌상 유일한 일월신화라는 데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설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어찌하여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라인의 일본 이주설이라던가 일본 신화와 연관성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일월신화 자체로만 보는 것 같아 만족할만한 결론에 이를 수 없기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까닭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연구하여 이 설화가 말하고자 하는 숨은 뜻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연오랑(延鳥郎) 세오녀(細鳥女) 설화(說話)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 권제일(紀異卷第一)의 연오랑(延鳥郎) 세오녀(細鳥女) 조에 보면

1) 포항시사 上, 고대사회, 포항시사편찬위원회, 1999, p. 96.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년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연오가 바다에 해조류를 채취하러 갔다가 갑자기 큰 바위 하나가(혹은 큰 물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 있기에 올라타니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길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왕으로 세웠다(살펴 보건데 일본제기 전후 어디에도 신라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으니 이는 변읍의 작은 왕이지 진짜 왕은 아니다). 세오가 지아비가 오지 않는 것이 괴이하여 찾으러 가보니 지아비가 벗어 놓은 신발이 보이는 지라 또한 그 바위 위에 올라타니 그 바위가 전과 같이 그 나라로 태워 갔다. 사람들이 놀라 모셔다 왕에게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었고 세오를 귀비로 세웠다.

이 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이 임금에게 아뢰길, 해와 달의 정령이 우리나라에 강림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왕이 사자를 보내 두 사람을 데려오라 했다. 연오가 말하길,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인데 이제 어찌 돌아가겠는가? 비록 그러하나 짐의 왕비가 잔고운 비단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 하늘에 제사하면 가하리라 하며 인하여 사자에게 비단을 내리니 돌아와 왕에게 아뢰고 그 말대로 제사한 뒤엔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빛나게 되었다. 그 비단을 어고에 넣어두고 국보로 했으며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고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 하고 또는 도기야라고 한다.”(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一日延烏歸海採藻忽有一巖(一云一魚)負歸日本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爲王(按日本帝記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細烏怪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奏獻於王夫婦相會立爲貴妃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延烏曰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綃

以此祭天可矣仍賜其綯使人來奏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藏其綯於御庫爲國寶名其庫爲貴妃庫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²⁾

라고 하였으니, 본고의 논지를 이끌어 가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 설화 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겉으로 들어난 이야기 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내용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연오랑(延烏郎)의 도해지(渡海地)

연오랑이 일본으로 건너간 곳은 현재의 포항시 영일만 일대인 것으로 정설화 되어 있고 실지 영일만 부근에는 연오랑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을 살펴봄으로서 설화에 나오는 연오랑이 일본으로 간 출발지인 도해지(渡海地)의 성격을 확인하고자 하고 아울러 신라에서 영일만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동해(東海) 바닷가

지금은 동해라고 하면 강원도 바닷가나 경상북도 바닷가 전체를 동해라고 하고 경상남도 동쪽 바닷가도 동해라고 한다. 물론 북한의 동쪽 바닷가도 동해인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국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초기의 신라에서는 강원도 북부나 함경도의 바닷가를 동해로 보지 않고 북해(北海)로 보았을 것이다.

실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新羅本紀) 제1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조에 보면,

“16년 봄 2월에 북명(北溟) 사람이 밭을 갈다가 예왕(濊王)의 인장

2)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延烏郎 細烏女, 韓國古典叢書 (社)民族文化推進會 1973, p. 63.

을 주어 바쳤다.”(十六年春二月北溟人耕田得濊王印獻之)³⁾

라고 했는데, 북명(北溟)은 지금의 강원도 강릉을 말하는 것으로 초기 신라에서는 강원도 지방의 바닷가를 북해(北海)로 보았다는 증거이다.

초기 신라에서는 현재 포항시 일원인 영일만(迎日灣) 부근을 동해 바닷가로 보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큰 바다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도 연오랑(延烏郎)이 살았다고 하는 영일만 일대를 동해바닷가(東海濱)라고 하였다. 영일만은 바다에서 내륙(內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길이 연결된 곳으로 동해안에서 몇 안 되는 입지를 가진 곳이다.

설화의 내용을 따르다면 연오랑이 이 곳 영일만 동해 바닷가에서 일본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설화의 내용 이전에 동해 바닷가라고 하는 곳은 신라에서 해 떠오르는 곳의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영일현(迎日縣)

영일군 이전에 영일은 현(縣)이었다. 영일(迎日)이란 지명도 그 뜻을 풀어보면 ‘해맞이’라는 뜻으로 신라에서 동해로 인식되던 영일만에서 솟는 아침 해를 보고 지명으로 삼은 것으로 본다.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영일만에서 동해바다로 나갈 수 있었고 일본이나 그 밖의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항구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영일현(迎日縣) 산천(山川) 조에 보면 형산강(兄山江) 하구 영일만(迎日灣) 일대 곧 포항시 두호동 앞 바다를 통양포(通洋浦)라고 하였는데⁴⁾ 이는 큰 바다로 통하는 포구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영일은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인식되었고 삼국유

3)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南解次次雄, 養賢閣, 1983, p. 881.

4) 東國輿地勝覽卷二十三, 迎日縣, 山川, 明文堂, 1981, p. 393.

사(三國遺事)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한 곳이기에 영일현(迎日縣)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끝 부분을 보면,
“하늘에 제사한 곳을 영일현이라 하고 또 도기야라고 한다.”(祭天所名迎日縣又都祈野)⁵⁾
라고 하여 이곳이 하늘에 제사한 곳임을 알려 주고 있다.

(3) 영일군(迎日郡)

현재는 포항시와 통합이 되었지만 서기 1995년 1월 1일 도농 통합시가 되기 전에는 영일군으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었고 당초에 포항시도 영일군에 속한 마을이었다. 영일현이 서기 1895년에 영일군으로 행정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영일만(迎日灣)

영일군에 있는 만(灣)이 라서 영일만이 되었고 아침 해를 처음 맞이하는 바닷가라는 뜻이 있다.

(5) 연일현(延日縣)

신라와 고려 때 영일현(迎日縣)을 연일현이라 고도 불렀다. 역시 해맞이 고을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실존 인물로 이곳 영일만 일대 어느 곳에서 일본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일만 일대가 신라에서는 동해 바다로 나가고 이어서 대양(大洋)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고 아울러 일본으

5)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延鳥郎 細鳥女, 韓國古典叢書, (社)民族文化推進會, 1973, p. 63.

로 갈 수도 있는 곳이기에, 사람이던 문물이던 유무형의 모든 것이 이곳에서 뱃길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상징적 출구점으로 여겼다고 보는 것이다.

3) 일월신(日月神)에게 제사한 곳

일본으로 떠난 연오랑과 세오녀가 돌아오지는 않고 세오녀가 짝비단을 주면서 이것으로 천제를 지내면 가할 것이라 했고 그 것을 사신이 가져와 천제를 지낸 곳이 영일현이고 다른 이름으로 도기야라 했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그 제사한 곳을 일월지라 하니 삼국유사에는 언급이 없던 곳이다. 삼국유사에는 영일현이 제사한 곳이고 그곳을 도기야라 한다고 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동국여지승람에는 일월지가 나오고 일월지가 세오녀의 비단으로 제사한 곳이라 한다. 현재 일월지 부근에는 해와 연관된 지명이 유독 많이 있고 일월지 자체가 누에고치처럼 두 개의 둥근 못이 하나 된 것같이 생긴 것이 벼루의 일월연(日月硯)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1) 일월지(日月池)

포항시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약 5000평에 달하는 타원형의 못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세오녀(細烏女)의 비단으로 천제(天祭)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해병부대의 영내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못 가에는 서기 1987년에 영일문화원에서 세운 일월지사적비(日月池史蹟碑)가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3 영일현(迎日縣) 고적(古跡) 조에 보면, 일월지(日月池)가 나오는데

“일월지는 영일현 동쪽 10리 도기야에 있다. 신라 아달라왕 때 동

해 바닷가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사내는 영오랑이라 하고 그 아내는 세오녀라 하였다. 하루는 영오가 해초를 채취하려고 바닷가에 갔는데 갑자기 표류하여 일본국에 이르러 작은 섬에 왕이 되었다. 세오녀가 그 지아비를 찾아 그 나라에 이르러 왕비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선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일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영오와 세오는 해와 달의 정령인데 지금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괴이한 일이 있는 것이라 했다. 왕은 사신을 보내어 두 사람을 데려오라 하였다. 영오가 말하길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 하고 이에 세오가 짚비단을 주면서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 지내라 하였다. 사신이 돌아와 이같이 아뢰니 그 말대로 못가에서 제사하였더니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내었다. 따라서 그 비단을 어고에 수장하고 이로 인하여 그 못을 일월지라 하고 현(縣) 이름을 영일(迎日)이라 하였다.”(日月池在縣東十里都祈野 新羅阿達羅王時東海濱有人夫曰迎烏郎妻曰細烏女一日迎烏採藻海濱忽漂至日本國小島爲王女尋其夫至其國爲妃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迎烏細烏日月之精今去日本故有斯怪王遣使求二人焉迎烏曰我到此天也乃以細烏所織絹付之令用此祭天使者來奏如其言而祭之於池上日月復光遂藏絹於御庫因名其池曰日月池縣名曰迎日)⁶⁾

라고 하였으니 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에는 이미 일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형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월동(日月洞)

일월지 부근에 있는 마을로 일월동이라 했으나 현재는 비행장 안에 편입된 마을로 이름만 남아 있는 곳이다. 부근에 일월지가 있어서 그 일월지에서 이름을 따서 일월동이라 하였다.

6) 東國輿地勝覽卷二十三, 迎日縣, 古跡, 明文堂, 1981, p. 395.

(3) 일광리(日光里)

일월지 부근에 있었으나 해병부대가 들어오면서 없어져 버렸다. 일월지 부근에 있고 역시 햇빛이 비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4) 광명리(光明里)

포항시 오천읍에 광명리가 있다. 일월지 부근에 있는 마을인데 그 지명의 유래를 보면,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일월지에서 천제를 지냈을 때 해가 다시 빛을 얻어 이 마을에 비치었다고 해서 광명리(光明里)라 했다 한다.

(5) 일월령(日月嶺)

포항시 동해면 상정리에 히날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한자로는 일월령(日月嶺)이라 한다. 신라 때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밝아 졌다는 전설을 간직한 고개로 연오랑과 세오녀의 설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히날은 밝은 날 또는 해 날과 같은 말로 이해되고 해가 빛을 잃었다가 다시 밝아 졌다는 것은 일식(日蝕) 현상일 수도 있다고 본다.

(6) 도기야(都祈野)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연오랑 세오녀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천제를 지낸 곳을 도기야(都祈野)라 한다고 했다. 글자 뜻을 보면 제사하는 들이나 기도하는 들쯤으로 해석이 가능 한데 현재로서는 도기야라고 불리는 곳은 없다. 분명 일월지 부근 어딘가를 도기야라고 했을 개연성이 있다. 지형을 살펴보면 일월지 앞쪽에서 바닷가 까지가 넓은 들로 형성되어 있으니 어림짐작으로 그 부근이 아닐까 한다. 부근에 영일읍이 있고 일월동 일광리 광명리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일월지 앞 바닷가 쪽에 도구리(都邱里)라는 마을이 있는데

도기야에서 유래한 마을이 아닐까 한다. 현재 동해면의 면소재지이다. 도구1리를 큰마을이라 하고 곳곳에 땅을 파면 시원하고 맑은 물이 솟아난다고 한다.

선돌과 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연륜이 있는 고장 같고 특히 천호라는 우물은 유명하다고 한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연오랑과 세오녀를 모신 일월사당이 있는 마을이다.

(7) 아등변(阿等邊)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2 흥해군(興海郡) 고적(古跡) 조에 보면 아등변(阿等邊)이라고 나온다.

“아등변은 다른 이름으로 근오(斤烏)라 하는데 형산포(형산강?) 가에 있다. 신라 때 이곳에서 동해신에게 제사하던 곳으로 중사의 제를 한 곳이다.”(阿等邊一云斤烏兄邊新羅祀東海神于此載中祀⁷⁾)

라고 하였으니 아등변은 동해신에게 제사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아등변을 다른 이름으로 근오(斤烏)라고 이른다 했으니 근오(斤烏)는 영일현의 고호(古號)인 근오지(斤烏支)와 같은 이름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현재 포항시사(浦項市史)에 의하면 일월지 부근의 오천읍 원리가 근오지현(斤烏支縣)의 소재지였다 고 밝히고 있다. 이 설명대로라면 아등변(阿等邊)과 도기야(都祈野)는 같은 장소가 아닐까 한다. 여기에서 동해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일월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변형된 것인지는 좀 더 연구해야 될 대목이라고 본다.

7) 東國輿地勝覽卷二十三, 興海郡, 古跡, 明文堂, 1981, p. 386.

(8) 일월사당(日月祠堂)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에 일월사당이 있다. 동해면사무소 뒤쪽 산 언덕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서기 1987년에 세웠다. 예전에 일월사당이 있었는데 일제 때 허물어 버려 다시금 복원하여 세웠다고 한다.

(9) 오천(烏川) 근오(斤烏)

오천읍(烏川邑)이 옛날 근오지현(斤烏支縣)의 소재지였다고 하니 오천의 오(烏)와 근오지의 오(烏)는 해(日)를 상징하는 글자이므로 해 떠오르는 고장, 해 맞이 고장으로의 상징성이 있는 지명이 아닌가 하고 또한,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영일현(迎日縣) 읍호(邑號)에 보면
“오천이라 하고 인성이라 한다(邑號, 烏川寅城).⁸⁾

라고 하였으니, 오천(烏川)의 오(烏)자는 당연히 해(日)를 뜻하고 인성(寅城)의 인(寅)자도 동쪽을 뜻하는 글자이기에 장차 연일(延日)이나 영일(迎日)이란 지명이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영일현(迎日縣) 군명(郡名) 조에 보면, 옛 이름이 근오지(斤烏支) 임정(臨汀) 오천(烏川) 오량지(烏良支) 등으로 나와 있다.⁹⁾

여기에서 임정(臨汀)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이름에 오(烏) 자가 들어간 것이 보인다. 오(烏)는 해(日)와 같은 뜻으로 일(日)의 차자(借字)에 불과하므로 근오(斤烏)는 근일(斤日)로 오천(烏川)은 일천(日川)으로 오량지(烏良支)는 일량지(日良支)로 보아야 하며 이로 미루어 본다면 나중에 군명(郡名)을 바꿀 때 연일(延日)이나 영일(迎日)로 오(烏)가 일(日)로 변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오(烏)는 일(日)의 차자(借

8) 大東地志, 迎日縣, 邑號, 亞細亞文化社, 1976, p. 160.

9)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三, 迎日縣, 郡名, 明文堂, 1981, p. 393.

字)였음을 알 수 있다.

해를 상징하는 지명이 많다는 것은 이곳이 신라에서 태양신(太陽神)에게 제사하던 곳으로 볼 수도 있고, 신라가 ‘해의 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지던 해가 뜨는 상징적 장소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연일(延日)과 연오(延鳥) 영일(迎日)과 영오(迎鳥)

연오랑(延鳥郎)의 명칭에 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연오랑(延鳥郎)으로 나오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영오랑(迎鳥郎)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연일(延日)이 영일(迎日)로 바뀌어 연일현이 영일군으로 바뀌고 연일정씨(延日鄭氏)가 영일정씨(迎日鄭氏)로도 불린다.

여기에서 연오(延鳥)와 영오(迎鳥)는 같은 뜻이고 연일(延日)과 영일(迎日) 또한 같은 뜻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연일(延日)과 연오(延鳥)가 같은 뜻이고 영일(迎日)과 영오(迎鳥)가 같은 뜻을 알 수가 있다. 예부터 까마귀 오(鳥)자는 해(日)를 상징하는 글자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해(日) 속에 세발 달린 까마귀(三足鳥)가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생긴 것이다.

회남자(淮南子) 권7(卷七) 정신훈(精神訓)에 보면

“해 속에 준오가 있다. 주(註)에 이르길, 준(踰)은 준(蹲)이고 삼족오(三足鳥)라 하며 준(踰)이라 한다. 읽을 때 준이라 하고 높고 우뚝한 것의 준이다.”(日中有踰鳥-踰猶蹲也謂三足鳥踰讀踰巍之踰)¹⁰⁾

라고 한 글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해 속에는 세발 달린 까마귀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산해경(山海經)의 대황동경(大荒東經)에 보면

“양곡 위에 부목이 있는데 한 개의 해가 이르러자 한 개의 해가 막

10) 淮南子, 卷七, 精神訓,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6년.

떠오르는데 모두에 까마귀가 실려 있다.”(湯谷上有扶木一日方至一日方出皆載于烏)¹¹⁾

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에서는 해 속에 준오(駿鳥) 곧 세발까마귀(三足鳥)가 있다고 하였고 산해경(山海經)에는 해 속에 까마귀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는 모두가 해 속에 세발 달린 까마귀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 조재삼(趙在三)이 지은 송남잡지(松南雜識)에도 비슷한 글이 있다.

송남잡지(松南雜識)의 일월자웅(日月雌雄)에 보면

“해는 태양의 정기로 까마귀가 실려 있다.”(日者太陽之精積而成鳥)¹²⁾라고 하였다.

해 속에는 까마귀가 살고 달 속에는 토끼나 두꺼비가 산다고 하는 것이 예부터 민간에 전해지는 전설이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 세발까마귀가 그려진 예가 많다. 그밖에도 사전류를 보면 해를 금오(金鳥) 또는 금아(金鴉)라 하고 달을 옥토(玉兔)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오(延鳥)는 연일(延日)일 수밖에 없고 영오(迎鳥)는 영일(迎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실존 인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의인화(擬人化)한 대상이나 하는 의구심을 가져 봄직도 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연오랑과 세오녀를 일월(日月)의 정(精)이라 했으니 필시 사람은 아니고 사람의 형상을 한 일월신(日月神) 쯤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 나아가 해와 달을 남녀의 사람으로 의인화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오랑이 살던 곳을 연일(延日)이라 이름 하였고, 그것은 자연현상으로 신라에서 해 뜨는 고장으로서의 상징성을 갖춘 곳이라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 山海經, 海經, 大荒東經(26), 鄭在書譯, 民音社, 1993, p. 291.

12) 松南雜識, 日月雌雄, 亞細亞文化社, 1986, p. 11.

5) 세오녀(細烏女)의 비단과 뽕나무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를 보면, 연오랑이 세오녀가 짠 비단을 신라 사신에게 주면서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하면 된다고 한다.

해(日)라고 하는 것이 일식(日蝕)이 아니고서는 매일 뜨는 것이고 밝기에도 변함이 없는 존재인 것은 고금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가자 해가 빛을 잃었고 세오녀가 짠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하자 해가 예전대로 밝아 졌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여기에서 비단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단의 상징성을 알아보자.

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하면,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 짜는 것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사는 것이다.

누에 암 나방은 약500~600개의 알을 낳고는 죽는다. 알에서 깨어난 누에새끼를 묘(苗)라 하고 검은 털을 벗지 못한 새끼는 개미 같다고 해서 개미누에 곧 의자(蟻子)라 하고 털누에라고 한다. 세 번째 잠자는 누에는 삼유(三幼)라 하고 27일이 된 것은 잠노(蠶老)라 하고 늙은 누에는 홍잠(紅蠶)이라 한다. 번데기는 용(蛹), 성체 나방은 아(蛾), 고치는 견(繭), 누에똥은 잠사(蠶砂)라 한다.

알에서 부화된 누에 새끼는 불과 2~3mm 정도로 작은 개미누에라 하는데 이때부터 뽕잎을 먹고 자란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는 4령 잠을 자고 5령 잠을 자면서 급격히 자라서 약 8cm 가량 자란다.

6령이 되면 고치를 짓는데 2~3일 정도 걸린다. 고치 한 개에 약 1500m 정도의 명주실이 나온다. 누에는 고치 속에서 3일 정도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 12~16일 정도 지나면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에가 뽕잎을 먹고 산다는 것이다. 당연히 뽕잎은 뽕나무에서 나오고 뽕나무는 부상(扶桑)나무인 것이고 부상 나무는 해가 뜨는 나무라는 것이다.

누에가 만든 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 비단을 짚지만 비단은 뽕나무의 진기로 만들어진 뽕나무의 다른 모습일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단은 뽕나무의 다른 형태이고 뽕나무는 부상(扶桑)나무이며 부상나무는 해가 떠오르는 나무이기에 비단은 해를 상징하는 물건인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는 해의 정령(精靈)으로 일본으로 가서 하늘의 뜻으로 이곳에 왔으니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며 대신 비단을 줄 터이니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 지내면 해와 달이 예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다고 매일 뜨는 해가 뜨지 않는 건 아니다. 신라의 상징이던 ‘해의 나라’가 일본으로 갔다고 다음 날 해가 뜨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해의 상징이라 할 비단으로 의례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미 떠나간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상징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다.

6) 우리나라를 부상국(扶桑國)이라 했다

예전에 중국에서 봤을 때 서해 바다는 그들의 동해였고 우리나라는 그들이 봤을 때 동쪽에 있는 해 뜨는 나라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상국(扶桑國)이라 하였다.

부상(扶桑)은 동해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신령한 뽕나무로 해가 뜨는 나무라고 한다.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는 그냥 뜨는 것이 아니라 부상나무 밑에서 올라와 부상나무 꼭대기에 이르러서는 하늘을 굴러가서 서쪽의 함지(咸池)라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이러한 부상나무에 관한 전설은 그 뿌리가 오래 되었기에 각종 서적에 나오고 민간에 널리 퍼져있어 그 이해가 넓다.

산해경(山海經)의 해외동경(海外東經)에 보면

“양곡(해 뜨는 곳)의 위에는 부상나무가 있는데 열 개의 해가 목욕하는 곳이다. 흑치국의 북쪽에 있는데, 물 한 가운데에 큰 나무가 있어 아홉 개의 해는 아래가지에 있고 한 개의 해는 윗가지에 있다.”(湯谷上有扶桑十日所浴在黑齒北居水中有大木九日居下枝一日居上枝)¹³⁾

라고 하여 해 뜨는 양곡에 부상나무가 있고 그 부상나무에 열 개의 해가 달려있다고 했다.

회남자(淮南子) 권4 지형훈(地形訓)에 보아도

“부목은 양주(해 뜨는 곳)에 있는데 해가 비치는 곳이다.”(扶木在陽州日之所曠)¹⁴⁾

라고 하면서 그 주(註)에 이르기를

“부목은 부상나무다. 양곡의 남쪽에 있다. 쬐다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것이다. 양주는 동쪽이다.”(扶木扶桑也在陽谷之南曠猶照也陽州東方也)¹⁵⁾

라고 하였다.

부상(扶桑)을 부상(搏桑)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 부(搏)자가 부상나무를 뜻하는 글자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부(搏)자를 찾아보면

“부(搏)는 부상(搏桑)이며 신목(神木)이다. 해가 뜨는 곳이다. 주(註)에 이르길, 해가 처음 뜨는 곳은 동쪽인데 양곡의 부상나무에서 솟는다. 부상은 약목(爨木)이다. 그런 즉 부상이 약목이다.”(搏搏桑神木日所出也(註)日初出東方湯谷所登搏桑爨木也然則搏桑卽爨木也)¹⁶⁾

라고 하였으니 부상(扶桑)이나 부상(搏桑)이나 같은 뜻이고 해가 뜨

13) 山海經, 海經, 海外東經,(11), 鄭在書譯, 1993, p. 254.

14) 淮南子, 卷四, 地形訓,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6년.

15) 淮南子, 卷四, 地形訓,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6년.

16) 說文解字注, 木部, 搏字, 天工書局, 中華民國76년.

는 신령스런 뽕나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상(扶桑, 搏桑)을 약목(爨木)이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강희사전(康熙字典)의 상(桑)자를 찾아보면 그 주(註)에 이르기를

“해는 처음 동쪽에서 솟는데 양곡에서 떠오른다. 부상은 약목이다. 누에가 신성한 뽕잎을 먹는바 그러므로 약자 아래에 목(木)을 더하므로 서 달라진 것이다.”(日初出東方湯谷所登搏桑약木也蠶所食神葉故加木爨下以別之)¹⁷⁾

라고 하였다.

동해 바다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부상나무(뽕나무)가 있고 그곳에서 해가 뜬다고 하는 설화는 민간에 널리 퍼져 있다. 그래서 부상(扶桑)이라고 하면 곧 동쪽을 상징하고 해(日)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부상국(扶桑國)이라한 자료를 찾아본다.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의 부상(扶桑), 상목지구(桑木之區), 상역(桑域) 조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¹⁸⁾

(1) 부상(扶桑)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신라 무열왕(武烈王) 7년(서기660년) 경신(庚申)에 세운 부여평백제비(扶餘平百濟碑)에

“먼저 반목을 벌주고 부상을 멸해 물리쳤네.”(前誅蟠木하고 却翦扶桑이라)

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를 부상(扶桑)이라 한 것이다.

신라 혜공왕(惠恭王) 7년(서기771년) 신해(辛亥)에 만든 성덕왕신종명(聖德王神鐘銘)에

17) 新修康熙字典(上), 木部, 搏字, 啓業書局, 中華民國79年, p. 769.

18) 韓國地名沿革考, 權相老編, 東國文化社, 1961, p. 148.

“살기는 무릉도원 땅에 살고 경계는 부상에 접해 있네.”(地居桃塍
에 界接扶桑이라)

라고 하였고

신라 진성왕(眞聖王) 4년(890년) 경술(庚戌)에 김영(金穎)의 찬(撰)
인 원랑선사비명(圓朗禪師碑銘)에

“조선은 동쪽으로 부상에 닿아 있고 옛 현인들은 이곳을 복된 땅이
라 이르네.”(朝鮮兮東接扶桑하고 昔賢兮稱茲福田이라)

라고 하였고

신라 헌덕왕(憲德王) 5년(서기913년) 계사(癸巳)에 세운 김헌정(金
獻貞)의 찬(撰)인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에

“불일이 양곡에서 스스로 다시 높이 솟으니 법운이 부상을 거느리
고 다시 일어나네.”(佛日이 再杲自暘谷하니 法雲이 更起率扶桑이라)

라고 하였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려 있는 염축향분예불결사문(厭觸香墳禮
佛結社文)에

“법흥대왕이 두 손을 맞잡고 자극전에 드시어 부상의 땅을 굽어 보
시도다.”(法興大王이 垂拱紫極之殿하사 俯察扶桑之域이라)

라고 하였고

고려 문종(文宗) 29년(서기1075년) 을묘(乙卯)에 혁연정(赫連挺)의
찬(撰)인 균여전(均如傳)을 보면

“내 몸의 신독이 다시 도지는 것은 용수 때문이요 부상의 시작은
의상 때문이다.”(復興於身毒은 職龍樹之由요 濫觴乎扶桑은 職義相
之由라.)

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가 ‘해 뜨는 나라’ 부상국(扶桑國)임을
알 수 있다.

(2) 상목지구(桑木之區)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의 대세자집교장발원문소(代世子集教藏發願文疏)에

“원하건대 이 상목의 땅을 불교의 땅으로 교화하고자 하나이다,”
(願茲桑木之區를 素仰竺乾之化라)

구(桑木之區)는 부상(扶桑)의 땅으로 부상국(扶桑國)과 같은 말인 것이다.

(3) 상역(桑域)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고려 이계현(李齊賢) 청표(請表)에
“상역의 교화가 성함에 감복하오며 보통사람이 여러번 고치려 하나 성인이 한번 고침만 못하나이다.”(感盛化於桑域하니 庶變魯一變之期라)

라고 하였다.

상역(桑域) 또한 상목지구(桑木之區)나 부상국(扶桑國)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니 우리나라를 ‘해 뜨는 나라’ ‘해 뜨는 부상나무의 나라’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7) 동쪽나라, 해(日)의 나라

우리나라를 조선(朝鮮)이라 하는데 그 뜻은 밝은 아침의 나라라는 것이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를 동쪽의 나라라고 했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니 자연스럽게 ‘해(日)의 나라’라고 했다. 물론 중국 쪽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 뜨는 동쪽의 나라라고 자부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사서(史書)나 지도(地圖) 등의 명칭에서 동쪽을 뜻하는 동(東)자가 많다는 것이다.

오행사상(五行思想)에서 오행(五行)은 금수목화토(金水木火土)이

고 그것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배정하면 동방목(東方木) 남방화(南方火) 서방금(西方金) 북방수(北方水) 중앙토(中央土)이다. 동쪽을 목(木)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동쪽이 목(木)인가? 그것은 동쪽 바다 한 가운데에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 곳에서 해가 솟아올라오기에 동쪽을 목(木)으로 본 것이다. 동방목(東方木)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동쪽을 뜻하는 동(東)자 자체가 해와 연관이 있는 글자이고 해 돋는 부상나무를 상형화한 글자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동(東)자를 찾아보면

“동(東)자는 해(日)가 나무 가운데 있음을 좇은 것이다. 주(註)에 이르기를, 나무(木)는 부상나무다. 해가 나무 가운데 있으면 동(東)이라고 하고 해가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고(杲)라 하고 나무 아래에 있으면 묘(杳)라 한다.”(東從日在木中(註)木樽木也日在木中曰東在木上曰杲在木下曰杳)¹⁹⁾

라고 하였으니, 동(東)자는 부상나무와 해가 결합된 글자로, 동국(東國)이니 대동(大東)이니 해동(海東)이니 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해의 나라’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日)의 나라를 뜻하는 날 일(日)자 지명이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글학회가 지은 ‘우리 말 큰 사전’을 이용하여 동(東)자가 들어간 우리의 사서나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고 권상노가 지은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를 이용하여 일(日)자가 들어간 우리나라 지명을 살펴본다.

(1) 동국(東國)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중국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도 있겠으나 실은 해 뜨는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자

19) 新修說文解字, 木部, 東字, 啓業書局, 中華民國79年, p. 721.

부심이 깃든 이름이다. 그래서 각종 사서에 동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①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

조선 정조 때 성해응이 우리나라 명승지를 소개한 것을 융희3년(서기1909년) 경성의국어학교 교우회에서 엮어 펴낸 책이다.

② 동국문감(東國文鑑)

고려 충렬왕 때 김태현이 우리나라의 고대로부터 고려 때까지의 시와 문장을 모아서 엮은 책으로 6권 2책이다.

③ 동국문헌(東國文獻)

조선 태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의 여러 명신들의 약전인데 김성개가 교정하여 진라북도 정읍 충렬사에서 순조4년(서기1804년)에 펴낸 책으로 4권 4책이다.

④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조선 영조의 명을 받아 홍봉한 등이 조선 영조 46년(서기1770년)에 펴낸 우리나라 고금의 문물제도를 적은 책으로 100권 40책이다.

⑤ 동국병감(東國兵鑑)

조선 문종의 명으로 엮어 선조 41년(서기1608년)에 펴낸 책으로 고조선 때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시대 차례로 적은 책으로 2권 2책이다.

⑥ 동국사략(東國史略)

조선 태종의 명으로 권근 등이 단군 때부터 고려 때까지의 역사를

지어 펴낸 책으로 6권2책이다.

⑦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조선 순조 때 홍석모가 우리나라의 연중행사 및 풍속을 풀이해 펴낸 책으로 1책이다.

⑧ 동국시호(東國諡號)

조선 선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역대 신하에게 준 시호를 적은 책이다.

⑨ 동국시호고(東國諡號考)

조선 인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의 명신들의 시호를 열거하고 주를 붙인 책이다.

⑩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유근 등이 조선 광해군 9년(서기1617년)에 임금의 명을 받아 펴낸 책, 충신 효자 열녀로서 뛰어난 인물들에 관한 책으로 삼강행실도의 속편으로 18권 18책이다.

⑪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조선 성종의 명으로 노사신 등이 각 도의 지리 풍속 등을 적은 책이다.

⑫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고려 고종 28년(서기1241년)에 펴낸 이규보의 문집이다.

⑬ 동국정운(東國正韻)

조선 세종 30년(서기1448년)에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새 체계에 따라 정리하여 펴낸 음운서이다.

⑭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조선 선조 때 한백겸이 우리나라에 관한 사항을 여러 고서에서 뽑아 모으고 의견을 덧붙여, 인조 18년(서기1640년)에 아들 한교흥이 펴낸 역사지리책이다.

⑮ 동국통감(東國通鑑)

조선 세조의 명으로 서기1463년에 최항 등이 시작해 성종 15년(서기1484년)에 서거정 등이 완성해 펴낸 책으로 고조선부터 고려 공양왕까지의 사실을 적은 역사책인데 56권 26책이다.

⑯ 동문선(東文選)

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을 모아 엮은 책, 조선 성종 9년(서기1478년)에 임금의 명으로 서거정 등이 모아 엮은 정편 130권과 중종 13년(서기1518년)에 신용개 등이 엮은 것을 숙종 39년(서기1713년)에 송상기 등이 고쳐 펴낸 속편 21권으로 되어 있다.

⑰ 동사강목(東史綱目)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이 통감강목의 체제에 따라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를 편년체로 지은 역사책, 정조 2년(서기1778년)에 완성되어 서기1915년 조선고전간행회에서 펴냈다.

⑱ 동사보유(東史補遺)

조선 광해군 때 조정이 단군이래의 국사의 빠지거나 모자라는 점을 채워 지어 아들 조유도가 인조 24년(서기1646년)에 펴낸 국사책으로 4권 2책이다.

①9 동사년표(東史年表)

단군 원년(서기 전2333년)부터 서기1910년까지 4243년 동안의 년표로 어윤적이 만들어 펴냈다.

②0 동사찬요(東史纂要)

조선 선조 때 오 윤이 신라 시조로부터 고려 공양왕까지 1449년 동안의 사적을 동국통감 삼국사기 고려사 따위를 참고하여 줄여서 지어 광해군 원년(서기1609년)에 펴낸 역사책으로 8권 8책이다.

◎ 동사회강(東史會綱)

조선 숙종 때 임상덕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관해 편년체로 엮어낸 책으로 27권 10책이다.

◎ 동인시화(東人詩話)

조선 성종 5년(서기1474년)에 서거정이 신라에서 조선 초까지 시인들의 시를 품평해 펴낸 시화집으로 2권 1책이다,

◎ 동인지문(東人之文)

고려 공민왕 4년(서기1355년)에 최 해가 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뛰어난 시문을 모아 엮어 펴낸 책으로 25권이다.²⁰⁾

위에서 살펴 본데로 많은 사서들이 동쪽을 뜻하는 동녘 동(東)자를 우리나라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 뜨는 나라, 동쪽 나라를 뜻하는 동국(東國)이란 말이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나라라고 인식을 하게 됐으니 우리나라가 해의 나라, 해 뜨는 나라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를 만들어도 동국지도(東國地圖)라 했고 동여도(東輿圖)는 더 크게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라고 했다.

20) 우리말 큰 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ㄷ부, p. 1101.

그밖에도 의서(醫書)를 만들어도 동의보감(東醫寶鑑) 또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등으로 책 이름을 짓고 돈을 만들어도 동국통보(東國通寶)니 동국중보(東國重寶)로 만들고 종교도 동학교(東學敎)니 동화교(東華敎)가 있고 우리를 동이족(東夷族)이라 하고 나라 이름도 동예(東濊)와 동단국(東丹國) 등이 있고 신라의 고도 경주를 동경(東京)이라 하고 임금의 이름도 동명성왕(東明聖王)이 있고 제천의 식(祭天儀式)도 동맹(東盟)이라 했으니 우리가 어찌 해 뜨는 나라가 아닌가?.

(2) 대동(大東)

동쪽을 더욱 크게 말하기 위해 대동(大東)이라 한다. 대(大)는 스스로를 높일 때 쓰는 글자로 동(東)을 대동(大東)으로 동국(東國)을 대동국(大東國)으로 하되 줄여서 대동(大東)으로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높이어 대동(大東)이라 하여 많은 사서들이 앞쪽에 대동(大東)을 넣어 이름을 지으니 그 수가 부지기수다.

신라 진흥왕순수비문을 비롯하여 조선 선조 때까지 금석문을 탐본한 책으로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가 있고 조선왕조 편년사를 기록한 대동기년(大東紀年)이 있고 조선시대 일화와 소문을 기록한 대동기문(大東奇聞), 구한말 교과서로 쓰던 대동문수(大東文粹), 고가요 및 시를 모은 책 대동시선(大東詩選), 문학서 대동야승(大東野乘), 인문지리서인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김정호의 지리책 대동지지(大東地志), 시조집인 대동풍아(大東風雅), 등이 대동(大東)이라는 이름을 책머리에 올리고 있다.²¹⁾

그밖에도 지도를 만들면서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가 있는가 하면 그 유명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도 있다.

21) 우리말 큰 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ㄷ부, p. 977.

대동(大東)은 동쪽을 높이어 부르는 이름이자 해 뜨는 나라를 높이어 부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대동(大東)은 해 뜨는 큰 나라이자 해 뜨는 동쪽의 큰 나라라는 뜻이다.

(3) 해동(海東)

우리나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해동(海東)이라 한다. 그것은 중국의 동쪽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동(海東)이라 했다고 하고 황해(黃海) 또는 발해(渤海)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해동(海東)이라는 말이 있으나 실은 해 뜨는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역시 우리나라 여러 사서 가운데 해동(海東)을 책머리에 붙인 것이 많으니 시조집인 해동가요(海東歌謠)가 있고 고승들의 전기집인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이 있고 농학책인 해동농서(海東農書)가 있는가 하면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문헌 해제집인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 소아 교육서인 해동소학(海東小學), 시집인 해동시선(海東詩選), 역사시집인 해동악부(海東樂府), 시조집인 해동악장(海東樂章), 야사집 해동야언(海東野言), 역사책 해동역사(海東釋史), 여러 가지 사적을 기록한 해동잡록(海東雜錄), 등등 해동을 앞세운 사서들이 많고 고려 때는 해동원보(海東元寶) 해동통보(海東通寶) 해동중보(海東重寶) 등의 엽전이 주조되기도 하였다.²²⁾

바다 동쪽의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의 동국(東國) 대동(大東) 해동(海東)은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나라 이름은 신라니 고구려니 고려니 조선이니 하였지만 그들 공통으로 쓰

22)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8부, p. 4575.

23) 權相考 編, 韓國地名沿革考, 東國文化社, 1979, p. 250.

24) 韓國史大事典, 敎育出版公社, 1979, p. 1431.

25) 우리말큰사전, 한글학회, 어문각, 1992, p. 3921.

이던 자랑스런 이름은 동쪽의 해 뜨는 나라를 상징하는 동국(東國) 대동(大東) 해동(海東)이었다.

(4) 진국(震國), 진단(震旦, 震壇, 震檀)

대조영이 세운 발해국(渤海國)의 처음 이름이 진국(震國)이다. 진(震)은 팔괘(八卦)에서 동쪽을 뜻하는 글자이다. 통전(通典)에 보면“발해는 본래 속말말갈이니 그 추장 조영에게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진단(震旦)이라 했다.”²³⁾라는 대목이 있으니 발해는 초기에 진국(震國) 또는 진단국(震旦國)이라 하였으니 동방국(東方國)이라는 뜻이요 ‘아침 해의 나라’임을 표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뒤에 발해(渤海)라는 나라 이름도 ‘밝은 해’를 의미하는 뜻을 한자로 차차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단(震檀, 震壇)은 우리나라를 예스럽게 일컫는 말의 하나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십오장(十五章) 주(註)에 보면 신지비사(神誌秘詞)에 구변진단(九變震檀)의 글귀가 있어 진단(震檀)이 예부터 우리나라를 부르는 칭호라고 한다고 했다.²⁴⁾ 그밖에도 진방(震方)을 동쪽이라 하고 진역(震域)은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일컫던 말이다.

진(震)은 우레를 뜻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동쪽을 뜻하는 글자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동쪽의 나라’ 또는 ‘동쪽의 해 뜨는 나라’로 여겼던 글자이다.

(5) 진국(辰國), 진한(辰韓)

삼한(三韓)으로 분리되기 전에 삼한 전체를 진국(辰國)이라고 불렀다. 고조선(古朝鮮) 다음의 나라 이름을 진국(辰國)이라 했고, 진왕(辰王)이라는 최고 지배자가 부족연맹사회를 다스리는 맹주(盟主)였다

고 한다. 고조선이 쇠(衰)하자 한강 이남으로 강역이 축소되었는데 그 나라를 진국(辰國)이라 하고 그 본거지가 목지국(월지국: 目支國, 月支國)이라 하는데 뒤에 마한(馬韓)이 되었다고 한다.²⁵⁾

마한(馬韓)이 분리되면서 삼한(三韓)이 되는데 마한(馬韓) 변한(弁韓) 진한(辰韓)이다. 마한(馬韓)은 뒷날 백제(百濟)가 되고 변한(弁韓)은 가야(伽倻)가 되고 진한(辰韓)은 신라(新羅)가 된다.

여기에서 진국(辰國)의 진(辰)과 진한(辰韓)의 진(辰)이 같은 글자인데, 진(辰)은 진(震)과 통하는 글자로 역시 동쪽을 뜻하는 글자인데 나중에 비우(雨)자가 첨삭이 된 글자이다. 진(震)은 정동(正東)이며 진(辰)은 동남(東南)이 되지만 둘 다 동쪽을 뜻하는 글자이다. 그러기에 진국(辰國)이나 진한(辰韓)은 중국 쪽에서 보았을 때 동방의 나라요 우리 스스로는 동쪽의 해 뜨는 나라임을 자부하는 이름이었다.

(6) 해(日)의 나라

우리나라가 해 뜨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의 나라이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표방하는 국호(國號)는 없었다. 그러나 별칭(別稱)이나 이칭(異稱)으로 해(日)의 나라임을 알리곤 했다.

권상노가 지은 ‘한국지명연혁고(韓國地名沿革考)’에 보면 우리나라가 해(日)의 나라임을 여러 문헌을 통해 밝혀 놓았다. 아래에 그 내용을 인용한다.²³⁾

① 일방(日邦)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고려 김극기(金克己)가 금(金)나라에 있을 때 사리관표(謝離館表)에 이르길

“장차 일방(日邦: 해의 나라)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자와 감히 높

23) 韓國地名沿革考, 權相老編, 東國文化社, 1961, p. 236.

은계단 아래에서 물러감을 고 하나이다.”(將還命於日邦하여 敢告辭於雲陞라)

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를 다른 이름으로 ‘해의 나라’ 일방(日邦)이라 한 것이다.

② 일변(日邊)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고려사(高麗史)에 태조(太祖) 16년(서기933년) 계사(癸巳)에 후당(後唐)의 책왕문(冊王文)에

“일변(日邊: 해 근처의 나라)의 분야를 다스리니 바다 밖의 영웅이로다.”(領日邊之分野하니 冠海外之英雄이라)

하였으니 후당의 황제가 고려를 일변(日邊)이라 한 것이다.

③ 일역(日域)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신라 헌덕왕(憲德王) 5년(서기814년) 갑오(甲午)에 세운 김경헌(金貞獻) 찬(撰)인 신행선사비(神行禪師碑)에

“일역(日域: 해의 땅)으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무리들을 인도하리라.”(還歸日域하여 引導群蒙이라)

하였고, 고려 광종(光宗) 16년(서기965년) 을축(乙丑)에 세운 이몽유(李夢游) 찬(撰)인 정진국사비(靜眞國師碑)에

“바다 모퉁이에서 두루 교화하니 그 성가가 일역(日域: 해의 땅)을 울리네.”(化遍海隅하여 聲震日域이라)

라고 하였고 또 고려사(高麗史) 문종(文宗) 3년(서기1049년) 기축(己丑)에 걸안주(契丹主) 책왕문(冊王文)에

“일역으로 잡혀와 동쪽 한 귀퉁이에 살게 되었도다.”(控臨日域하여 居蒼龍列宿之方이라)

하였고, 고려 숙종(肅宗) 8년(서기1103년) 계미(癸未)에 송나라로부터 온 글에

“대대로 왕으로 봉하니 일역 땅을 나누어 주노라.”(世紹王封하여 地分日域이라)

하였으니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호 말고도 이칭으로 일역(日域) 곧 해의 땅, 해의 나라라고 부른 것이다.

④ 일출지방(日出之邦)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조선 서거정(徐居正)이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를 임금에게 바치는 전문(箋文)에

“오직 우리 해 뜨는 나라는 진실로 하늘이 만들어준 땅입니다.”(惟我日出之邦이 實是天作之地라)

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를 ‘해 뜨는 나라’라고 한 것이다.

⑤ 일출처(日出處)

역시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신라 최치원(崔致遠) 찬(撰)인 랑혜화상비(朗慧和尚碑)에

“저 일출처가 근기를 거의 다 익힐 것이다.”(彼日出處가 根殆熟矣라)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일출처(日出處) 곧 해 뜨는 나라로 여겼다.

⑥ 일택(日宅)

역시 조선(朝鮮)의 이칭(異稱)이니, 신라 최치원(崔致遠)이 귀국할 때 중국 황제에게 올린 사은표(謝恩表)에

“황제의 은총을 받아 일택(日宅: 해의 집, 곧 해의 나라)이 영광스럽고 융성하겠습니다.”(寵降天家하여 光融日宅이라.)

라고 하였다.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신라 고려 조선을 지치면서도 국호(國號)와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해의 나라’ ‘해 뜨는 나라’ 임을 자부하였고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하지만 확실하게 ‘해의 나라’ 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왔던 것이다.

8) 해와 하늘이 이상하다

신라 초기에 일식(日蝕) 현상이 많이 일어났음을 삼국사기는 기록

하고 있다. 천문학적으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은 일식(日蝕)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나라던 건국 초기에는 신비함과 신성함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강조됐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시조 혁거세 거서간 재위 기간 중에 무려 7차례나 일식(日蝕)이 있었고 2대 왕인 남해 차차웅 재위 기간에 2번 일식이 있었고 벌휴 이사금 재위 중에는 3번의 일식이 있는 등 서기 201년까지 무려 18번의 일식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 초기에 이렇게 일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겐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본다. 특히 ‘해(日)의 나라’로 자부하던 신라인들에게 해(日)에 이상 징후가 보인다는 것은 해의 나라의 위상에 이상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것이다.

일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쪽 하늘에 혜성(살별)이 자주 나타나는 등 해와 하늘에 괴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정서적으로 해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본다. 상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자연현상에 민감하여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이 덕이 없어 그렇다고 여기는가 하면 억울한 송사가 있어 한(恨)이 하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여 살인자가 아니라면 모두 방면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 왔다. 또한 옛날에는 살별이 나타나면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난다고 하여 꺼리는 천문현상이며 이럴 때 군신(君臣)들은 근신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미덕일 때도 있었다.

일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가 다시 나타나고 밝아지기는 하지만 일식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던 옛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마음을 심어 줄 수 있고, 해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해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시조 혁거세 거서간부터 내해 이사금 6년까지 일식(日蝕)과 혜성(살별) 출현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아래에 열거 한다.

- * 혁거세 거서간 4년 (BC 54년) 여름 4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9년 (BC 49년) 봄 3월에 혜성(살별)이 왕량성에 나타났었다.
- * 혁거세 거서간 14년 (BC 44년) 여름 4월에 혜성(살별)이 삼성에 나타났었다.
- * 혁거세 거서간 24년 (BC 34년) 여름 6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30년 (BC 28년) 여름 4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32년 (BC 26년) 가을 8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43년 (BC 15년) 봄 2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54년 (BC 4년) 봄 2월 기유일에 혜성(살별)이 하고성에 나타났었다.
- * 혁거세 거서간 56년 (BC 2년)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 혁거세 거서간 59년 (서기 2년) 가을 9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남해 차차웅 3년 (서기 6년) 겨울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 남해 차차웅 11년 (서기 14년) 유성(流星)이 적진에 떨어지다.
- * 남해 차차웅 13년 (서기 16년) 가을 7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유리 이사금 31년 (서기 54년) 봄 2월에 혜성(살별)이 자미궁에 나타났었다.
- * 탈해 이사금 3년 (서기 59년) 6월에 혜성(살별)이 천선성에 나타났었다.
- * 탈해 이사금 23년 (서기 79년) 봄 2월에 혜성(살별)이 동쪽에 나타나고 또 북쪽에도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 * 파사 이사금 25년 (서기 104년) 봄 정월에 못별이 비처럼 떨어졌으나 땅에는 이르지 못했다.
- * 지마 이사금 9년 (서기 120년) 봄 2월에 큰 별이 월성 서쪽에 떨어지니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 * 지마 이사금 13년 (서기 124년) 가을 9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 지마 이사금 16년 (서기 127년) 가을 7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지마 이사금 17년 (서기 128년) 가을 8월에 혜성(살별)이 하늘에 뻗히었다.

* 일성 이사금 8년 (서기 141년) 가을 9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일성 이사금 16년 (서기 149년) 가을 8월에 혜성(살별)이 천시성에 나타났다.

* 일성 이사금 20년 (서기 153년) 겨울 10월에 혜성(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다시 북쪽에 나타났다.

* 아달라 이사금 13년 (서기 166년)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벌휴 이사금 3년 (서기 186년) 여름 5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벌휴 이사금 10년 (서기 193년)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벌휴 이사금 11년 (서기 194년) 여름 6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내해 이사금 5년 (서기 200년) 가을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 내해 이사금 5년 (서기 200년) 가을 9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내해 이사금 6년 (서기 201년) 봄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²⁴⁾

9) 동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

그동안 신라는 해의 나라로 자부하였고 가장 동쪽에 자리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왜(倭)라고 하는 무리가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을 하였고 급기야는 하나의 국가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정복 전쟁 와중에서 생겨난 유민(遺民)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약탈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체제로 성장한 무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그들을 지칭할 때 왜(倭), 왜인(倭人). 또는 왜병

24)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赫居世居西干~奈解尼師今, 養賢閣, 1983, pp. 879~888.

(倭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린우호(善隣友好) 적일 때는 왜국(倭國)이라고 하여 하나의 국가로 인정 하였다.

기록에 처음 왜(倭)가 나타나는 것은 혁거세왕 시절인데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혁거세 거서간(赫居世居西干) 조에 보면

“혁거세거서간 8년(BC50년)에 왜인(倭人)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변경을 침범하려다 시조에게 뛰어난 덕이 있음을 듣고 돌아갔다.”(赫居世居西干八年倭人行兵欲犯邊聞始祖有神德乃還)²⁵⁾

는 내용이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건국 시조에 대한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왜(倭)는 신라의 변경을 빈번하게 약탈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다가 60여년이 지나서 남해왕 때 왜(倭)가 대규모로 쳐들어온 일이 있으니 같은 책 남해 차차웅 조에 보면

“남해 차차웅 11년(서기 14년)에 왜인(倭人)이 병선 1백여 척을 보내어 바닷가의 민가를 약탈하므로 6부의 날랜 군사를 보내어 이를 막았다.”(南解次次雄十一年倭人遣兵船百餘艘掠海邊民戶發六部勁兵以禦之)²⁶⁾

라고 하였다. 왜(倭)는 더 이상 좀도둑의 무리가 아니라 신라를 위협할 막강한 세력으로 커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탈해왕 때에는 일시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같은 책 탈해왕 조에 보면

“탈해 이사금 3년(서기 59년) 여름 5월에 왜국과 더불어 우호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 했다.”(脫解尼師今三年夏五月與倭國結好交聘)²⁷⁾

25)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赫居世居西干, 八年, 良賢閣, 1983, p. 879.

26)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南解次次雄, 十三年, 良賢閣, 1983, p. 880.

27)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三年, 良賢閣, 1983, p. 882.

라고 되어 있으나, 14년 뒤인 탈해왕 17년에는 왜가 쳐들어오게 되니 우호관계가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책 탈해왕 17년 조에 보면,

“탈해 이사금 17년(서기 73년) 왜인이 목출도(木出島)를 침범하므로 왕이 각간 우오(羽烏)를 보내어 막게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우오는 전사 했다.”(脫解尼師今十七年倭人侵木出島王遣角干羽烏禦之不克羽烏死之)²⁸⁾

라고 하여 신라의 재상이 전사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후 왜는 빈번히 소규모로 신라 변경을 침범하니 신라에서는 왜의 만행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고 본다. 그러다가 지마왕 10년에 왜가 신라의 동쪽 변경을 침범 한다. 같은 책 지마왕 조에 보면,

“지마 이사금 10년(서기 121년) 여름 4월에 왜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 했다.”(祗摩尼師今十年夏四月倭人侵東邊)²⁹⁾

라는 평범한 기사가 보이는데, 실제 기록에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신라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다. 왜냐 하면 다음해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신라인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과 같을까? 같은 책 지마왕 11년 조에 보면

“지마 이사금 11년(서기 122년)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 나무를 꺾고 기왓장을 날렸는데 저녁때가 돼서야 그쳤다. 서울(경주)사람들이 ‘왜병이 크게 쳐 들어온다’고 잘못 퍼뜨려서 다투어 산골짜기로 피하니, 왕이 이찬 익종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그치게 했다.”(祗摩尼師今十一年夏四月大風東來折木飛瓦至夕而止都人訛言倭兵大來爭遁山谷王命伊滄翌宗等諭止之)³⁰⁾

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왜의 침략이 빈번 했고 백성들이 왜의 만행에

28)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十七年, 良賢閣, 1983, p. 883.

29)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祗摩尼師今, 十年, 良賢閣, 1983, p. 885.

30)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祗摩尼師今, 十一年, 良賢閣, 1983, p. 885.

두려움을 느껴 동쪽에서 이상한 조짐만 보여도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왕은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왜국과 강화(講和)를 하게 된다.

같은 책 지마왕 12년 조에 보면,

“지마 이사금 12년(서기 123년) 봄 3월에 왜국과 강화를 했다.”(十二年春三月與倭國講和)³¹⁾

라고 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왜국과 강화를 함으로서 민심을 진정시키기에 이르렀고 탈해왕에 이어 왜(倭)를 왜국(倭國)이라고 칭하며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부터 내해왕 13년까지 85년간 왜국은 신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별휴왕 10년(서기 193년)에 왜국에 큰 흉년이 들어 왜국 사람들이 신라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천 명(一千名)이 넘었다는 기사가 보이기도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연오랑 설화가 있는데 반해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연오랑 설화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삼국유사에는 연오랑이 일본으로 간 때가 아달라왕 즉위 4년이라 했는데 삼국사기의 아달라왕 4년 기사에는 연오랑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보면 아달라왕 5년에 왜인(倭人)이 예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연오랑이 일본으로 간 이듬해에 해당하는 때에 왜인이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아달라 이사금 5년(서기 158년) 봄 3월에 왜인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阿達羅尼師今五年春三月倭人來聘)³²⁾

는 대목이다.

두 기록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다른 왕 때에는 빈번하게 침범하던 왜인(倭人)들도 아달라왕 때는 단 한 차례도 침범이 없

31)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祇摩尼師今, 十二年, 良賢閣, 1983, p. 885.

32)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阿達羅尼師今, 五年, 良賢閣, 1983, p. 887.

었고 15년 뒤인 아달라왕 20년(서기 173년)에는 왜(倭)의 여왕이 사신을 보내며 교빙(交聘)하고 있음을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아달라왕 20년 조에 보면

“아달라 이사금 20년(서기 173년) 5월에 왜국 여왕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왔다.”(阿達羅尼師今二十年夏五月倭女王卑彌乎遣使來聘)³³⁾

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왜(倭)의 여왕 비미호에 대해서는 중국의 후한서(後漢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인물이다.

후한서(後漢書) 권85 동이열전(東夷列傳) 제75 왜(倭) 조에 보면

“안제 영초 원년 왜국에 큰 난리가 나서 다시 서로 치고 싸우느라 몇 년이 지나도 왕이 없었다. 이때 한 여자가 있었으니 이름 하여 비미호(卑彌呼)라 하였다. 나이가 들도록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귀신의 도를 섬기었는데 능히 요술로 대중을 미혹하게 하니 이에 모두가 왕으로 세웠다. 그를 모시는 여자 비(婢)가 천여 명인데 모두가 어린 자들이다. 오직 남자 하나가 있어 음식을 날라주고 그 말씀을 전한다. 거처는 궁실의 높은 누대로 성책(城柵)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고 모든 병권과 지휘권을 쥐고 있다. 법과 풍속이 매우 엄하다.”(安帝永初元年 倭國大亂更相攻伐歷年無主有一女子名曰卑彌呼年長不嫁事鬼神道能以妖惑衆於是共立爲王侍婢千人少有見者唯有男子一人給飲食傳辭語居處宮室樓觀城柵皆持兵守衛法俗嚴峻)³⁴⁾

라고 하였다.

이렇듯 중국 사서에도 나오는 왜국(倭國)의 여왕(女王)이 사신을 보내는 등 양국(兩國)이 선린우호의 관계를 맺어 화평한 시대를 만든 것은 아달라왕의 외교적 시각이 뛰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또한 삼국유사에서 연오랑을 데려오기 위해 사신을 일본으로 보낸 아달라왕이

33)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阿達羅尼師今, 二十年, 良賢閣, 1983, p. 889.

34)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倭,

기에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아달라왕 재위 기간에는 단 한 차례도 왜(倭)의 침략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호의 관계는 그 뒤 내해왕 때에 왜인이 쳐 들어오면서 깨어지고 만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내해 이사금(奈解尼師今) 조에 보면,

“내해 이사금 13년(서기 208년) 여름 4월에 왜인이 국경을 침범 했으므로 이별찬 이음을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막게 했다.”(奈解尼師今十三年夏四月倭人犯境遣伊伐澆利音將兵拒之)³⁵⁾

라고 하여 왜인이 85년간의 화평을 깨고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에도 계속 신라 국경을 침범하는 횡수가 늘고 있다.

조분왕 때도 왜인이 쳐 들어오니, 같은 책 조분 이사금(助賁尼師今) 조에 보면,

“조분 이사금 3년(서기 232년) 여름 4월에 왜인이 갑자기 쳐들어 와서 금성(金城)을 포위 했다. 왕이 친히 나아가 싸우니 적이 달아났으므로 날랜 기병을 보내어 뒤 쫓아가서 적의 머리 1천여 급을 베었다.”(助賁尼師今三年夏四月倭人猝至圍金城王親出戰賊潰走遣輕騎追擊之殺獲一千餘級)³⁶⁾

라고 했고, 1년 뒤에 왜인이 또 쳐들어 왔고 2달 뒤에 또 쳐들어 온 기록이 있으니,

“조분 이사금 4년(서기 233년) 5월 왜병이 동쪽 변경을 침범 했다. 가을 7월에는 이찬 우로가 왜인과 사도(沙道)에서 싸웠는데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놓아 배를 불태우니 적이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助賁尼師今四年五月倭兵寇東邊秋七月伊澆于老與倭人戰沙道乘風縱

35)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奈解尼師今, 十三年, 良賢閣, 1983, p. 889.

36)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助賁尼師今, 三年, 良賢閣, 1983, p. 889.

火焚舟賊赴水死盡³⁷⁾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우로(于老)는 16년 뒤에 왜인의 공격으로 전사하게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점해왕 조에 보면,

“점해 이사금 3년(서기 249년) 여름 4월에 왜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三年夏四月倭人殺舒弗邯于老)³⁸⁾

라고 하였다.

이렇듯 왜(倭)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여 노략질을 일삼으니 신라 사람들에게는 불안한 존재이자 한편으로는 동해 바다 건너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었다.

10) 부상국(扶桑國) 지위의 이동(移動)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해 돋는 나라 부상국(扶桑國)이라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더 동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탈해왕 3년 조에 보면,

“탈해 이사금 3년(서기 59년) 여름 5월에 왜국과 더불어 우호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 했다.”(脫解尼師今三年夏五月與倭國結好交聘)³⁹⁾

라고 하면서, 그동안 왜(倭) 또는 왜인(倭人)으로 지칭하던 왜를 왜국(倭國)으로 지칭하며 하나의 국가로서 우호관계를 맺고 사신을 교환하고 있다. 이것은 동쪽 바다 건너에 실제적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상대한 것이다.

이로부터 64년 뒤에 지마왕(祗摩王)이 왜와 강화(講和)를 하게 된다.

37)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助賁尼師今, 四年, 良賢閣, 1983, p. 890.

38) 三國史記卷第二, 新羅本紀第二, 沾解尼師今, 三年, 良賢閣, 1983, p. 890.

39)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三年, 良賢閣, 1983, p. 882.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마왕(祗摩王) 12년 조에 보면
“지마이사금 12년(서기123년) 봄 3월에 왜국(倭國)과 강화를 했다.”
(祗摩尼師今十二年春三月與倭國講和)⁴⁰⁾

라고 하여 탈해왕에 이어 두 번째로 왜(倭)를 왜국(倭國)이라고 하며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80 여 년간 왜
는 신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에 동쪽에 엄연히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해의 나라 부상국(扶桑國)의 지위는 동쪽에 있는 왜
(倭)로 사실상 넘어 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도 해 뜨는 나라임을 자부하였는지 문무왕(文武王) 시
절에 이르러서는 국호(國號)를 당당히 일본(日本)으로 바꾸어서 통보
하는 일이 벌어졌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문무왕(文武王) 10년 12월 조에 보면
“왜국(倭國)이 나라 이름을 고쳐 일본(日本)이라 했는데 스스로 말
하기를 ‘해가 뜨는 곳에 가까우므로 이렇게 이름 한다’ 고 했다.”(倭國
更號日本自言近日所出以爲名)⁴¹⁾

이로서 왜(倭)는 ‘해의 나라’ 일본(日本)이 되었고, 그동안 해의 나라
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해의 나라’의 상징이던 부상
국(扶桑國)의 지위를 넘겨주게 되었고 상징 동물이던 까마귀도 함께
넘어가게 된 것이다.

11) 까마귀에서 닭으로

해의 나라에 상징 동물이 있다면 그것은 까마귀일 것이다. 지금도
일본 동경에 가보면 우리가 재수 없다고 여기는 까마귀가 너무너무

40)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祗摩尼師今, 十二年, 良賢閣, 1983, p. 885.

41) 三國史記卷第六, 新羅本紀第六, 文武王上, 十年, 良賢閣, 1983, p. 992.

많은데 놀라고 더욱 이상한 것은 일본사람들이 까마귀를 흉조(凶鳥)로 여기지 않는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하며 침을 뱉뱉 뱉곤 한다. 그러나 까치가 울면 재수가 있다고 하며 기분 좋아 한다.

일본(日本)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도 까마귀를 좋아 했고 신성한 새 로 여겼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 삼족오(三足鳥)를 그려 넣었고 정월 보름에 먹는 약밥은 까마귀를 위하는 풍습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러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가운데 사금갑(射琴匣)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⁴²⁾

그러나 부상국(扶桑國)의 지위가 일본으로 넘어가자 까마귀를 싫어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남방과 교류하면서 점차 까치를 좋아하기에 이르는데 여기에는 탈해왕의 탄생설화 가운데 까치의 등장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다.⁴³⁾

광아(廣雅)에 보면

“완전히 검고 반포(反哺)하는 새를 까마귀(烏)라 하고 작고 배 아래 쪽이 희고 반포하지 않는 새를 갈까마귀(鴉)라 한다. 옛날 아경(鴉經)이 있어 길흉을 점 쳤는데 남방 사람들은 까치를 좋아하고 갈까마귀를 싫어하는데 북방 사람들은 그 반대이다.”(廣雅, 純黑反哺者謂之烏小而腹下白不反哺者謂之鴉烏古有鴉經占吉凶南人喜鴉惡鴉北人反之)⁴⁴⁾라고 하였다.

원래부터 북방 민족이던 우리는 태양의 상징이던 까마귀를 좋아했는데 중국의 남방과 교류하면서 까치를 좋아하게 된 것이다. 때맞추어 ‘해의 나라’의 상징성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정서가 팽배한 시점이 라 자연스럽게 까마귀를 싫어하게 됐고, 도리어 일본은 태양의 상징

42)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射琴匣, 韓國古典叢書, (社)民族文化推進會, 1973, p. 73.

43)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元年, 良賢閣, 1983, p. 882.

44) 明文漢韓大字典, 鳥部, 鴉字, 明文堂, 1987, p. 2088.

인 까마귀를 좋아하게 된 것이라 본다.

일본(日本)으로 ‘해의 나라’의 상징인 부상국(扶桑國)의 지위와 까마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신라에서는 새로운 상징물을 찾아야 하는 당위성에 봉착한다.

신라에서 처음으로 왜(倭)와 수교를 하면서 왜(倭)를 왜국(倭國)으로 하나의 나라로 처음 인정한 왕이 탈해왕(脫解王)이다. 그는 더 이상 신라가 ‘해의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한 왕이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상징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탈해왕은 재위 9년에 국호(國號)를 계림(鷄林)으로 고치게 되니, 삼국사기(三國史記) 탈해왕 9년(서기 65년) 조에 보면,

“시림을 계림으로 고치고 이로 인하여 국호로 하였다.”(改始林名鷄林因以爲國號)⁴⁵⁾

라고 하여,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으로 고치고 계림을 나라 이름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이때부터 신라는 계림국(鷄林國)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시림(始林)을 계림(鷄林)으로 바꾼데에는 시림(始林) 가운데에서 탄생한 김알지(金闕智)의 탄생 설화에서 흰 닭(白鷄)이 연결되어 있기에 시림(始林)이 계림(鷄林)으로 바뀌게 되는 동기는 있지만⁴⁶⁾, 해를 상징하는 까마귀에서 아침을 알리는 닭으로 국가의 상징물이 교체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곧 더 이상 ‘해의 나라’가 아니므로 해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기피하고 아침을 알리는 상징 동물인 닭으로 국가의 상징으로 삼고 ‘해의 나라’에서 ‘아침의 나라’로 자연스럽게 변화 이동한 것이라 본다.

45) 三國史記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脫解尼師今, 九年, 良賢閣, 1983, p. 883.

46)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金闕智 脫解王代, 韓國古典叢書, 1973, p. 62.

3. 결론

우리는 연오랑과 세오녀의 설화를 문헌상 유일한 일월신화라고 한다. 그러면서 연오랑과 세오녀를 실존 인물로 보며 신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한 것으로 이해하려 하고 또는 일월신화 자체로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연오랑과 세오녀를 실존 인물로 보지 않고 ‘해의 나라’의 상징으로 보고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것은 해의 나라를 뜻하는 부상국(扶桑國)의 이동으로 보는 것이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부상국이었고 해의 나라였지만, 일월신(日月神)의 화신이라 할 그들이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부상국의 지위가 더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본문 내용을 간추리면,

1)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것은 단순히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해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더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며

2) 세오녀가 짠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뿜 실로 짠 것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고 뽕잎은 뽕나무에서 나오고 뽕나무는 부상(扶桑)나무이며 부상나무는 해가 솟는 곳이니 결국 비단은 태양 곧 해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이다. 이 물건으로 하늘에 제사하므로서 이미 이동한 해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상징성을 확보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3) 우리나라를 부상국(扶桑國)이라 했고 동쪽의 나라(東國, 大東, 海東, 震國, 震旦, 辰國, 辰韓)라고 했고 또한 해의 나라(日邦, 日域, 等)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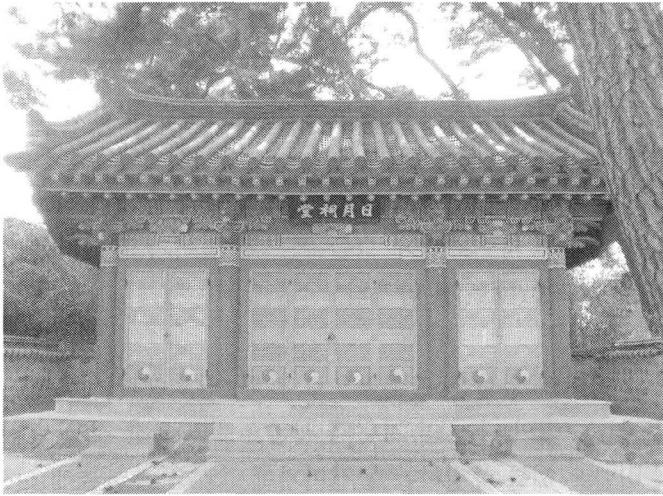
4) 신라에 시조(始祖) 때부터 잦은 일식(日蝕)으로 해(日)에 이상 징

후가 자주 나타났고 이것은 민심의 동요로 ‘해의 나라’에 대한 상징성이 흔들리는 계기가 됐다.

5)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더 동쪽에 엄연히 다른 나라가 있었다.

6)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그들이 ‘해의 나라’를 표방하고 나오자 부상국의 지위는 자연스럽게 그들 쪽으로 넘어가고 신라는 계림국(鷄林國)으로 국호(國號)를 바꾼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결론적으로 말해,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간 것은 ‘해의 나라’의 지위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을 말하고 세오녀의 비단은 해를 상징하는 물건이기에 그것으로 하늘에 제사지내므로 해서 실제적 ‘해의 나라’는 일본으로 갔지만, 신라도 해가 밝게 뜨는 ‘아침의 나라’로 거듭 나는 상징적 의식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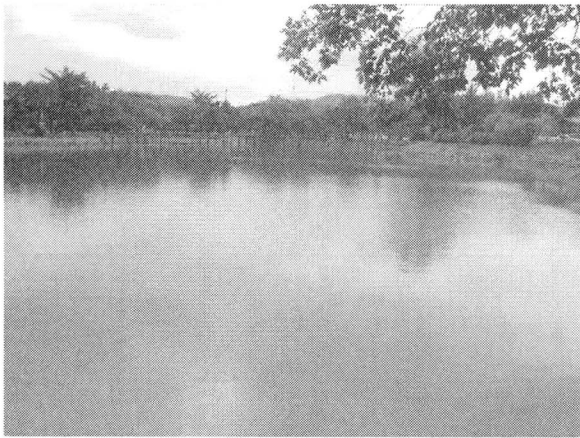
일월사당 전경(포항시 소재)



연오랑 세오녀 상(포항시 소재)



일월지 사적비(포항시 소재)



일월지 모습(포항시 소재)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가 일본으로 간 까닭_김강산 243